

한·중 여성 SF소설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상

— 『지구 끝의 온실』과 『작은 버섯(小蘑菇)』을 중심으로

딩징이*

목 차

1. 들어가며-한·중 여성 SF소설의 부상
2. 퀴어링된 로맨스와 섹슈얼리티의 전복
3. 여성 유토피아 구축의 (불)가능성
4. 인류세의 횡단과 공산의 사유
5.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과 중국의 여성 SF 서사에서 페미니즘적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천착하고자 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여성 SF소설이 부상하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이나 중국에는 SF장르는 굉장히 남성적인 장르였는데, 90년대 들어 SF가 대중적인 장르로 취급되면서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SF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여성 SF 작가들의 작품은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근대주의적인 사상들을 전복하려고 하는 의식은 많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 SF소설인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일십사주(一十四洲)의 『작은 버섯(小蘑菇)』이라는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한국과 중국이라는 국가나 지역 간의 비교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여성 작가들이 왜 SF를 통해서 기존의 젠더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고, 한·중 여성 SF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동아시아 여성들의 SF를 통한 소통·연대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했다.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키워드: SF, 페미니즘, 사이보그, 퀴어,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1. 들어가며-한·중 여성 SF소설의 부상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여성 SF소설이 부상하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이나 중국에는 SF 장르가 굉장히 남성적인 장르였는데, 90년대 들어 SF가 대중적인 장르로 취급되면서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SF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여성 SF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페미니즘적인 자의식이 굉장히 돋보인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까지는 어린이·청소년 SF소설이 빈번히 나왔지만,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창작한 SF소설이 많이 없었다. 이 시기 SF소설의 창작자와 수용자가 대부분 남성이었고, 소설에는 여성 캐릭터가 별로 없으며 남성 주인공의 아내나 욕망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PC통신이 발전하고 페미니즘 사상이 대중화되면서 송경아, 듀나(DJUNA)¹⁾ 등 1세대 여성 SF 작가들이 나왔고 한국 여성 SF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특히 2010년대 이후 여성 SF작가들이 대거 등장한다. <표1>²⁾은 인터넷 서점 'YES24' 2022년 8월~2023년 8월

1) 듀나는 익명으로 활동하며 신상에 대하여 본인이 확인이나 언급을 회피한다. 그는 2000년에 출간된 소설집 『면세구역』 구관의 저자명 '이영수'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 하이텔 과학소설동호회 활동 당시 게시판에서 본인이 이화여대 철학과 재학 중이라서 성별은 여성으로 추측한다.

2) <표1> 'YES24 2022년 8월~2023년 8월 한국 창작 SF소설 분류 베스트셀러 TOP10'

순위	도서명	저자	발행일	발행처	평점
1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2021.08	자이언트북스	9.6
2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2019.06	허블	9.4
3	『천개의 파랑』	천선란	2020.08	허블	9.4
4	『저주토키』	정보라	2022.04	아작	9.3
5	『라스트 켈리 샷』	청예	2023.08	허블	9.2
6	『이끼숲』	천선란	2023.05	자이언트북스	9.8

한국 창작 SF소설 분류 베스트셀러 TOP10이고, 상위 10위권 중에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외에 모두 여성 작가의 작품이다. 김초엽 작가의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20만 독자를 사로잡으며 ‘한국 SF소설 전성기’를 견인하였다.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끼』가 영국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심사위원회는 이 작품이 “마법적 사실주의, 호러, SF의 경계를 초월했다”며 “현대 사회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매우 현실적인 공포와 잔인함을 다루기 위해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³⁾라고 극찬하였다. 최근 김초엽, 정세랑 등 3세대 여성 SF 작가들의 작품에는 소외계층이 미래세계의 주체가 되는 감성적인 SF소설들이 자주 눈에 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전의 SF소설은 주로 우주 탐험, 우주 전쟁 등을 주제로 하고 여성 캐릭터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혁명 이데올로기 담론의 퇴장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행으로 1990년대 SF소설은 ‘뉴웨이브(新浪潮)’ 시대를 맞았다. 장정(張靜), 조해홍(趙海虹) 등 여성 SF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중국 여성 SF소설의 서막을 열었다. 2000년대 이후 여성 SF 작가들이 부상하고 독자들에게 SF소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표2>⁴⁾는 ‘더우

7	『말 없는 자들의 목소리』	황모과	2023.08	래빗홀	9.8
8	『돌이킬 수 있는』	문목하	2018.12	아작	9.3
9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장강명	2023.07	문학동네	9.4
10	『다섯 번째 감각』	김보영	2022.02	아작	9.6

3) 「예스24 2022년 베스트셀러 트렌드 및 도서 판매 동향」, 『채널예스』, 2022.12.05. <http://ch.yes24.com/Article/View/52270> (검색일: 2024.03.07)

4) <표2> ‘더우반(豆瓣) 2022년 6월~2023년 6월 중국 창작 SF소설 분류 베스트셀러 TOP10’

순위	도서명	저자	발행일	평점
1	『피비우스 시공간(莫比烏斯時空)』	고적(顧適)	2020.03	9.5
2	『시간의 아이(時間的孩子)』	고적 외	2021.08	9.1
3	『고향명(故鄉明)』	왕낙낙(王諾諾)	2021.06	8.9
4	『삼체(三體) 1~3』	류츠신(劉慈欣)	2020.03	9.0

반(豆瓣) 2022년 6월~2023년 6월 중국 창작 SF소설 분류 베스트셀러 TOP10인데 상위 10위권 중에 두 권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 작가의 작품이다. 하오징팡의 단편소설 「접는 도시(北京折疊)」는 2016년에 휴고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하가(夏笳), 진이로(陳奕潞)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젊은 여성 SF 작가들의 작품들은 퀴어, 출산, 육아 등 문제를 많이 다루며, 치밀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하기보다는 여성이나 퀴어 등 '소수자'를 주인공으로 삼아 상상력을 펼친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여성 SF소설은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근대주의적인 상상력들을 전복하려고 하는 의식은 많이 보인다.

SF소설은 오랫동안 '빅 보이(Big boy)'의 도피주의 문학으로 여겨져 왔지만, SF소설과 페미니즘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 관계'이다. SF소설이라는 명칭이 휴고 건스백(Hugo Gernsback) 덕분에 대중화되었지만⁵⁾, SF 장르의 기원을 따져보면 그것이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1818)에서 시작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SF영화의 효시로 꼽히는 프리츠 랑(Fritz Lang)의 <메트로폴리스(Metropolis)>(1927)의 원작 소설도 테아 폰 하르보우(Thea Von Harbou)라는 여성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다.⁶⁾ '여성 SF' 혹은 '페미니즘 SF'⁷⁾는 1960년대에 출현한 용어이다.

5	『고독 깊은 곳(孤獨深處)』	하오징팡(郝景芳)	2016.07	9.2
6	『유랑지구(流浪地球)』	류츠신	2017.05	9.4
7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시간(你無法抵達的時間)』	하가(夏笳)	2017.09	9.0
8	『개미떼(蟻群)』	탕문극(湯問棘)	2021.11	9.1
9	『먼 곳에 가다(去遠方)』	하오징팡	2016.07	9.2
10	『우리는 난징에 살고 있다(我們生活在南京)』	천서설부(天瑞說符)	2022.12	9.7

'더우반(豆瓣)'은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리뷰 사이트로, 책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 관련 평점으로는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1926년 휴고 건스백은 최초의 SF 잡지 『어메이징 스토리(Amazing Stories)』를 창간하였다. 창간호에서 그는 거의 100년 동안 존재해 온 이 문학 장르를 'Scienti Fiction'이라고 명명했고, 나중에 그 명칭은 'Science Fiction'으로 발전하였다.

6) 김숙희, 「여성적 글쓰기의 또 다른 지평: SF소설 - 여성들이 그려내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젠더연구』 제6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2, 25쪽.

미국 작가 다이앤 쿡(Diane Cook)은 여성 SF를 “정치적 시스템 안에서 여성이 스스로 지위나 상태를 인식하고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 혹은 “페미니스트가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는 여성의 상태”로 정의한다.⁸⁾

2000년대 이후 한·중 여성 SF소설은 성차별과 퀴어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생태 파괴 등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성차별과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탐구하여 이분법의 세계를 뒤집으려 시도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 SF소설인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2021)과 일십사주(一十四洲)⁹⁾의 『작은 버섯(小蘑菇)』(2020)이라는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한중 여성 SF 서사에서 페미니즘적인 양상이 어떻게 들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작품은 모두 세계 종말을 앞두고 여성과 비인간이 세계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이 조우하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애증을 다룬다. 두 작가 모두 여성과 세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두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상상력을 살펴보고 한·중 여성 SF소설의 공통적인 특징과 차이점을 밝히며 양국의 여성 SF 작가들이 어떻게 여성과 세계의 관계를 재구축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한·중 여성 SF에 대한 비교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배명훈의 『신의 궤도』(2011)와 류츠신(劉慈欣)의 『삼체(三體)』(2006~2010), 한국 영화 <설국열차>(2013)와 중국 영화 <유랑지구(流浪地球)>(2018)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국에서 진행된 여성 SF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이론, 브라이도티와

7) “여성 SF”는 ‘페미니스트 SF’나 ‘페미니즘 SF’라고도 부른다. ‘페미니스트 SF’와 ‘SF 페미니즘’이 자주 혼용된 용어이다. 페미니스트 SF가 작품과 작가에 초점이 맞춰진 용어이라면, SF 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 SF가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이후 독자들의 활동까지 문화 전체를 포괄한다.” 김효진, 『#SF #페미니즘 #그녀들 이야기』, 요다, 2021, 21쪽.

8) 위의 책, 18-19쪽.

9) ‘일십사주(一十四洲)’는 작가의 필명이고 본명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一十四洲’는 당(唐) 나라 시인 관휴(貫休)의 「헌전상부(獻錢尙父)」에서 나온다. 원문은 “만당화취삼천객, 일검상한십사주.(滿堂花醉三千客, 一劍霜寒十四州.)”이다.

캐서린 헤일즈의 포스트휴먼 이론을 토대로 하고 두나, 윤이형, 김초엽 등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연남경¹⁰⁾은 김초엽, 김보영 등의 작품에 나타나는 시공간의 사고실험을 분석하며 포스트휴먼적 전망을 밝힌다. 김미현¹¹⁾은 윤이형과 김초엽 등 여성 작가들의 SF소설을 분석하고 테크노페미니즘의 (무)질서와 (불)연속성을 밝힌다. 강은교와 김은주¹²⁾는 두나와 김보영의 작품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SF의 동시대성과 잠재성에 주목하며 페미니즘적 확장을 도모한다. 중국에서 진행된 여성 SF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에코페미니즘과 테크노페미니즘 이론을 토대로 하고 하오징팡과 고적의 SF소설을 분석하였다. 탕유위(湯唯偉)¹³⁾는 하오징팡의 SF소설을 분석하여 오늘날 남성과 여성의 신체는 이미 기술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성별과 관련된 권력 차이가 약화될 것이며,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신체는 가부장제와 무관한 새로운 규칙에 복종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첨단 과학기술로 구축된 새로운 사회에서 젠더와 과학, 정치, 자연 간의 관계 문제는 재설정되거나 재구성되고 있다. SF는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고, 여성의 개입은 SF의 발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여성 SF소설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여성 SF소설을 중심으로 양국 여성 SF소설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상을 분석하고 여성 SF 작가들이 어떻게 여성과 세계의 관계를 재구축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0)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05-139쪽.

11)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0-35쪽.

12) 강은교·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두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6-62쪽.

13) 탕유위, 「中國當代科幻小說의性別敘事研究」, 中國礦業大學 碩士論文, 2021.

2. 퀴어링된 로맨스와 섹슈얼리티의 전복

시간여행, 인공지능, 외계인 침입, 우주 전쟁 등은 SF소설의 핵심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난해한 공학 이론과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무한한 상상이 가득한 SF소설 가운데 로맨스가 들어갈 자리는 거의 없다. 하드 SF¹⁴⁾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주류 SF 문학에서 감성적인 러브 스토리는 ‘하드 코어(hard core)’가 부족해서 SF소설의 변두리에 놓여 있다. 그러나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과 일십사주의 『작은 버섯』은 SF와 로맨스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기존의 러브 스토리와 달리 새롭게 퀴어링된 로맨스를 보여준다.

『지구 끝의 온실』에는 사이보그 여성인 레이첼과 인간 여성인 지수라는 두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퀴어링된 로맨스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남성과 여성이라는 위계적, 이분법적 관계를 전도하면서 인간중심적, 이성애중심적 섹슈얼리티를 전복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소설은 2055년 발생한 디스트, 즉 먼지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된 황폐화된 지구를 배경으로 설정된다. 정비사 지수와 식물학자 레이첼이 ‘프림 빌리지’라는 도피처를 만들어 그곳에는 디스트에 대항할 수 있는 개량 식물인 모스바나가 재배된다. 레이첼은 이 마을 전체가 의존하고 있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녀는 오로지 지수에게만 의존하는 사이보그이다. 지수와 레이첼은 서로를 돌보면서 새로운 친밀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수는 레이첼에게서 어떤 호의를 유도해내기 위해 상의 없이 그녀의 기계 뇌의 패턴 안정화 기능을 켜다.¹⁵⁾ 지수의 모순된 감정에는 레이첼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지수가 조정 스위치로 레이첼의 감정을 조절했을 때 그녀를 인간이 아닌 자기의

14) ‘하드 SF(Hard Science Fiction)’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심리학, 의학 등 ‘하드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엄격한 기술적 추론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한 SF작품을 가리킨다. 반면 ‘소프트 SF(Soft Science Fiction)’는 과학에 대한 상상과 추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과학의 실현 가능성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회 문제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더욱 중시한다.

15)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310-311쪽.

소유물로 취급하고,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을 때는 레이첼을 능동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체로 취급한 것이다.¹⁶⁾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레이첼은 식물들을 불태우고 마을을 떠나게 된다. 레이첼의 지수를 향한 호의와 감정은 모두 지수가 의도하고 만들어낸 것인가?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정의내리지 못했지만, 사이보그인 레이첼은 지수를 향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 자살을 포기하는 것, 식물을 연구하는 것, 인류를 구하는 것, 그 동력은 언제나 지수였다. 그러나 지수는 레이첼의 감정에 개입하여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끝까지 자신의 진심을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지수가 살펴온 건 언제나 레이첼의 기계 신체였고 감정은 아니었다.

『지구 끝의 온실』은 현재인 2129년, 더스트 폴이 폭발한 2055년, 지수와 레이첼의 첫 만남인 2053년 세 시기를 교차해서 서술한다. 지수와 레이첼의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 장에 배치하지만, 온실에 일어난 꿈같은 이야기, 인간을 구하는 이야기, 지구를 재건하는 이야기가 모두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아영은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지수의 칩을 받았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문자열을 풀 수 없다. 그 잠긴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레이첼’이다. 레이첼 역시 온실을 떠난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지만 처음부터 서로에 향한 감정이 생성된 것도 조작된 것도 아니다. 비록 그 진심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녀들은 알게 되었지만, 결국 온실의 이야기는 지수와 레이첼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다. 이와 같이 『지구 끝의 온실』은 인간과 비인간, 여성과 여성이 결합한 사랑을 통해 SF 세계의 쿼어링된 로맨스를 보여준다. 작가는 SF세계에만 일어날 수 있는 쿼어링된 로맨스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는 것이다.

한편 『지구 끝의 온실』은 레이첼의 사이보그-되기를 통해 기존의 섹슈얼

16) 윤영옥, 「한국여성 SF에 나타난 신체기술과 지구공동체 -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235쪽.

리티를 전복한다. 도나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인공두뇌 유기체로,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이며, 허구(fiction)의 피조물이자 사회 현실의 피조물”이고 “섹슈얼리티의 역사에서 출현한 적 없는 친밀성과 권력으로 잉태된 유기체와 기계, 이 두 코드화된 정치의 결합물”¹⁷⁾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그녀는 사이보그가 인간과 동물, 유기체와 기계, 신체와 비신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러한 경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정체성도 단절된다고 주장하였다.¹⁸⁾ 소설에서 레이첼은 바로 이러한 인간과 기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전도한 사이보그다. 솔라리타 연구소의 과학자들(남성들)은 분자 단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재조립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다. 그러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더스트 재난까지 초래하게 된다. 그들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레이첼을 죽이고 그녀의 식물들도 태워버리려고 하였다. 레이첼은 모스바나가 지구를 덮어버리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신체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젠더적 정체성을 생성함으로써 남성 과학자, 즉 남권의 억압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해, 그녀는 사이보그라는 새로운 신분을 통해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경계를 허물고 남성/여성의 이원적 대립을 타파하며 기존의 성 정체성을 해체한 것이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포스트젠더(post gender) 시대의 피조물’¹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애령은 해러웨이가 언급한 ‘포스트젠더’는 ‘젠더의 초월’이 아니라 보편 여성의 해체와 이분법적 젠더 체계의 내파를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 레이첼은 기계적인 것도 물리적인 것도 아닌 반패러다임으로서 이분법적 젠더 질서의 경계에 존재한다. 레이첼은 사이보그-되기를 통해 여성의 물질적 신체와 문화적 신체를 재구축하면서 타자로서의 여성이 기존의 젠더 질서에서 직면한 곤경과 폭력을 폭로하고 젠더적 이분법을 횡단하고

17) 도나 해러웨이 지음, 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인간과 동물과 사이보그에 관한 전복적 사유』, 책세상, 2019, 18쪽.

18) 도나 해러웨이 지음, 황희선·임옥희 옮김,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아르테, 2023, 273-300쪽 참조.

19) 도나 해러웨이 지음, 황희선 옮김, 앞의 책, 20쪽.

20) 김애령,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 제21호, 한국여성철학회, 2014, 87쪽.

전복한다.

『작은 버섯』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중국 웹소설 사이트 ‘진강문학성(晉江文學城)’에서 연재된 BL(Boys Love) SF소설이다. BL소설은 SF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적인 문학 장르로서 오랫동안 문학계의 변두리에 있고 독자층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SF는 BL소설 분야에서 별로 인기 없는 제재이지만, 『작은 버섯』은 수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SF계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며 제12회 ‘중국 SF 성운상(華語科幻星雲獎)’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먼저 밝혀야 할 문제는 왜 많은 여성 작가와 여성 독자들이 BL 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데 열중하며 BL문학을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여성들이 BL문학에서 자아에 대한 추궁과 자아 표현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들은 동성 간의 감정을 상상하고, 기존의 권력 질서의 규약 없이 인간의 감정과 신체 관계를 탐구하려고 한다. 따라서 BL 글쓰기 자체가 ‘여성성’을 드러내는 퀴어링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버섯』은 총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권은 ‘심판정’을 배경으로 한다. 100년 후의 지구에는 생물 유전자 융합 현상이 발생하고, 인간이 이종(異種) 생물의 공격을 받으면 감염될 것이다. 주인공 루풍(陸汎)은 감염 의심자 검열을 전담하는 심판정의 리더이다. 안절(安折)은 우연히 인간 남성의 신체를 갖게 된 버섯이다. 인간에게 빼앗긴 ‘포자’를 되찾기 위해 그는 인간으로 위장하고 기지에 들어가 심판자 루풍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 제2권은 출산을 전담하는 기관인 ‘에텐’을 배경으로 한다. 루풍의 어머니 루 부인(陸夫人)이 바로 에텐의 리더이다.

『작은 버섯』에서 안절은 인간의 형태와 기억을 가진 버섯이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무거운 도덕적 족쇄를 짊어질 필요가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지도 않는다. 시인(詩人)은 죽음에 직면한 안절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서 “우리를 관찰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연민하는 것 같

기도 하고, 조금 전에 당신에게서 어떤 신성 같은 걸 느꼈다고요”²¹⁾라고 한다. 심판자로서의 루풍에게는 예정된 두 개의 결말이 있다. 인간성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다가 결국 기지에 의해 처결되거나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다가 결국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미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누구도 루풍의 차가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며, 심판자의 사랑과 연민은 누구도 감히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안절은 인류와 확연히 대립하는 이종임에도 은근히 사랑과 연민을 얻기를 기대한다. 안절이 도망칠 때 루풍이 백 년 전에 정해진 철칙을 배반하여 자기 총을 안절의 배낭에 넣는다. 이종에게 총을 넘기는 순간 심판자 루풍은 평생의 신념을 배반하며 안절을 사랑한다.

소설에서 루풍과 안절은 모두 타자를 사랑하는 용기를 지닌 인물이다. 저자는 성경 『시편(Psalms)』 중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²²⁾라는 시를 인용하여 루풍과 안절 사이의 감정을 묘사한다. 최고 심판자인 루풍은 수많은 이종을 죽이고, 이종으로 변이된 부모까지 죽인다. 하지만 그는 평생 지키는 신념을 버리고 이종 안절을 사랑하게 된다. 많은 BL소설에서 두 남자 주인공의 관계는 종종 ‘강공약수(強攻弱受)’로 설정된다. ‘공(攻)’과 ‘수(受)’란 ‘공격’과 ‘수비’를 뜻하는 말인데, BL 장르에서는 연애편제나 성관계에서 리드하는 역할과 리드 당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수’는 사회에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약화된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해 일부 BL소설들은 동성 간에 사랑을 묘사하지만, 공과 수라는 캐릭터의 설정은 여전히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의 남녀 구도에 따른 것이다. 『작은 버섯』은 ‘강공약수’라는 설정을 전복하고, 단순히 성적 관계에서의 역할에

21) 一十四洲, 『小蘑菇: 審判日』, 北京: 北京聯合出版公司, 2020, 143쪽. 본 논문에서 인용한 『작은 버섯』의 내용은 2020년 출간된 중국어판 『小蘑菇 1,2』와 2023년 한국 콘텐츠 플랫폼 ‘리디(RIDI)’에서 번역 출간된 한국어판 『소마고』(문현선 역)를 참고해 번역한다.

22) 윌리엄 P. 브라운 지음, 하경택 옮김, 『시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제 23편 4절.

따라 캐릭터의 강약을 결정하지 않는다. 루풍은 자신이 굳게 지킨 신념에 대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남을 심판한다. 내 총구 아래 수많은 망혼이 있는데 누가 나를 심판하겠느냐”고 한다. 방관자로서의 안절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루풍이 겪은 모든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기지에서 가장 ‘악한’ 존재이지만, 절대적인 권력자인 루풍의 구원자이자 심판자이다. 안절은 식물도 동물도 아닌 이종이라서 인간인 루풍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별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종말의 세계에서 인간과 비인간 종의 경계마저 흐려지고 있으니 종 간의 차이는 더 이상 사랑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없다.

『지구 끝의 온실』과 『작은 버섯』에서 주인공의 사랑은 모두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중국 작가 사철생(史鐵生)은 사랑이 육신을 빌려 육신을 타파하는 것이고,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기도 하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라고 말한 바 있다.²³⁾ ‘타자’는 ‘차이’로 이해할 수도 있다. 성별은 여러 가지 ‘차이’ 중 하나일 뿐이다. 성별의 차이는 육체에 국한될 뿐이고 영혼의 차이는 훨씬 더 넓고 다양하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고, 사랑은 ‘차이’에 대한 궁금증과 탐구, 의혹과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차이’는 장벽이고 사랑은 이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남녀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랑이 남녀 사이, 인간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김초엽과 일입사주는 퀴어링된 로맨스를 통해 ‘정상성’ 섹슈얼리티를 전복한다. 그리고 두 작품은 모두 동성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지만,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부재하는 SF의 세계에서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두 작가가 그리는 개인의 성적 취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는 이성애중심주의에 향한 통렬한 비판이기도 하다.

23) 史鐵生, 『病隙碎筆』, 湖南: 湖南文藝出版社, 2017, p.178.

3. 여성 유토피아 구축의 (불)가능성

유토피아/디스토피아는 SF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理想郷)을 가리키며, 이상적인 사회와 삶을 상징한다. SF소설에서 유토피아는 단순히 지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구상된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 구축된 ‘더 나은 신세계’이기도 하다. 반면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에서 파생하는 가장 부정적인 미래 암흑세계를 가리킨다. 유토피아는 과학기술과 절대적인 이성에 대한 맹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완벽한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 기반한다면, 디스토피아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에 대한 회의와 전복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 끝의 온실』과 『작은 버섯』은 기존의 ‘더 나은 신세계’를 주목하는 유토피아/디스토피아 서사와 달리 새로운 SF적 상상력을 통해 여성 유토피아 구축의 (불)가능성을 타진한다.

『지구 끝의 온실』은 여성들만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인간은 과학만능주의를 신봉하고 남성 과학자들은 유전자조작 연구에 몰두하여 결국 지구 생태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해버리고 더스트 폴까지 초래하게 된다. 살육이 난무하는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은 안전지대 밖으로 추방되거나 학살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폭력적인 남성들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여야만 한다.²⁴⁾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남은 사람들 중의 내성을 가진 자가 있고 그들은 모두 여성들이다. 그래서 남성들은 내성종(여성)들을 잡아 생체실험을 한다. 소설 속 나오미와 아마라 자매는 바로 그 중의 생존자이다. 남성들의 과학만능주의, 이성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신봉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마음 같아서는 다 치워버리고 싶은데, 아마라의 얼굴을 봐서 참고 있

24) 이양숙, 「인류세 시대의 유토피아와 사이보그-‘되기」, 『도시인문학연구』 15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23, 182쪽.

답니다. 우리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서 저런 공헌패만 주고 입 막음이라니.”

“아마라는 진실을 알리고 싶어했고, 루단은 우리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유일한 친구였지요. 정작 아마라는 지난 몇 년간 입장을 바꾸어서, 자신이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고, 프림 빌리지 같은 건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저도 이제는 아마라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과거를 반복해서 말해봐야 비참해질 뿐이니까요.”²⁵⁾

인용문에서 나온 듯이 결국 마을 사람들이 프림 빌리지를 떠나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모스바나를 심어 세계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세계가 회복된 후에 아무도 프림 빌리지와 모스바나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사회의 집단 기억 속에서 더스트 시대의 고통이 흐릿해지고, 사람들에게 과학이란 더스트라는 재난 속에서 인류를 구한 위대한 기적이었고, 재건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도구였다.”²⁶⁾

『지구 끝의 온실』은 남성의 담론 헤게모니에 의한 역사에 대한 주관적인 재현을 비판한다. 영국 작가 도리스 레싱(Doris Lessing)은 『금색 공책(The golden notebook)』(1962)의 서문에서 “쓰인 글, 역사, 심지어 사회적 윤리를 강박적으로 경외하는 지금 이 시대에조차 이야기의 형태로 전수되는 많은 역사도 존재하고, 쓰인 것의 관점에서만 사고하도록 길든 사람들, 그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놓칠”²⁷⁾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레싱이 보기에는 역사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지 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역사관은 『지구 끝의 온실』에서도 볼 수 있다. 세계를 재건하는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에서 나오미는 프림 빌리지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기억으로 여성과 모스바나가 세계를 재건하는 역사를 서술하였다. 나오미의 자술이야말로 역사의 진실이고, 후세 사람들이 쓴 역사는 남성 담론 헤게모니의 ‘수정’을 거친 왜곡된 서사이다. 저자는 문명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25) 김초엽, 앞의 책, 102, 108쪽.

26) 위의 책, 56쪽.

27) 도리스 레싱 지음, 권영희 옮김, 『금색 공책 1』, 창비, 2019, 31쪽.

타자화를 고발하여 가부장적 문화를 비판한다. 나오미는 역사를 다시 서술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여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 영웅의 주체성을 되찾으며, 여성 역사의 베일을 벗기고 여성이 역사적이고 진실한 주체가 되도록 부상한다.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은 여성 연대의 힘을 드러내고, 독자들에게 여성 유토피아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일십사주의 붓 아래에서 포스트 휴먼 여성들은 해러웨이가 「사이보그 선언」에서 바랐던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명 권력에 규율되는 제1의 목표로 완전히 물건화, 타자화된다. 푸코는 ‘생명 권력’²⁸⁾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여 이를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기계로서의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인체의 해부-정치(anatomo-politics of humanbody)”이고, 다른 하나는 “종으로서의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의 생명-정치(bio-politics of the population)”이다. ‘인구의 생명-정치’는 생명을 대상으로 인구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²⁹⁾ 따라서 ‘인구의 조절’이 바로 ‘생명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버섯』에서 지구 자기장의 소멸로 인해 치명적인 방사선이 방출되어 전 세계의 종을 서로 감염시키고 변이를 일으키게 되며, 인류의 생식 능력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구 문제는 ‘재난 시대’에서 인류 문명을 유지하는 관건이 된다. 세계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에덴’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장미꽃 선언(玫瑰花宣言)’에 서명했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자궁과 생식 능력을 바쳤다.

“제4 인간 기지에서 출산 능력이 평점 60점 이상인 2만 3천 3백 7십 1명의 여성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통과시켰다. ‘나는

28) 1974년 푸코는 프랑스 학사원에서 진행한 강좌에서 ‘생명 정치’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18세기부터 부상한 일종의 근대의 정치적 실천을 의미하는 ‘생명 정치’는 “건강·출산율·인종 문제 등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였다. 『성의 역사』에서 푸코는 ‘생명 정치’의 의미와 비슷한 개념인 ‘생명 권력’을 제기하였다.

29) 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나남, 2010, 150쪽.

인류의 운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유전자 실험을 받아들이고, 모든 형식의 보조 생식 방법을 수락하고, 인간 종족의 지속을 위해 평생을 바쳐 싸울 것이다.”³⁰⁾

‘에덴’의 여성들은 매일 매일 출산 미션을 수행하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없다. 위 인용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장미꽃 선언’은 애초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집권자들은 ‘생식 자원’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전제 조건을 지워버린다. 나중에는 생식 능력이 있는 모든 여성을 태어나자마자 ‘에덴’에 가두어 세뇌시키고 그녀들에게 여성의 ‘사명’을 강요하며 다른 교육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여성은 독립된 개체로서의 기본권을 상실하고 인류 번식의 도구가 전락하여 결국 ‘걸어다니는 자궁’으로 물건화되었다. 『작은 버섯』에서는 인간 과학기술의 힘이 미미할 뿐 아니라 다른 문명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늙은 사고방식을 고수하여 인간 종족의 존속을 위해 과학기술로 여성을 억압한다.

1985년 마거릿 애트우드(Margaret Atwood)는 『시녀 이야기(The Handmaid's Tale)』에서 ‘시녀’라는 이미지를 창작하였다. 소설에서는 미래세계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간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출산 가능한 여성들이 코카서스 인종의 출산율 급락을 되돌리는 프로젝트에 강제로 징집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녀들은 유독성 폐기물이 가득 찬 격리 수용소로 보내지고 핵폐기물을 치우거나 창가에 보내 남성 통치자의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작은 버섯』에서 에덴에 갇힌 여성들은 ‘시녀’보다 더 잔혹한 세계에 처해 있다. 소설에서 뜻밖의 사고로 인해 루 부인은 벌에 감염되었다. 여왕벌로 변신한 루 부인은 무접촉한 방식으로 ‘에덴’의 모든 여성과 아이들을 감염시킨다. 감염된 후의 그 찰나의 자유를 얻기 위해 그녀는 벌로 이화한 그들을 이끌고 탈출하였다. 생식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루 부인은 자유를 위

30) 一十四洲, 앞의 책, 243쪽.

해 스스로 이중으로 변신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변이한 후에 마침 이중의 번식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강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다.

생물의 본능은 생존이고 생물종의 본능은 번식하는 것이다.

누구도 도망치거나 달아날 수 없다. 루 부인은 영원히 그 함정에 갇혔다.

어쩌면 그 순간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순간에, 별로 변했지만 아직은 별이 되지 않았던 순간에는 그녀가 바랐던 것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원하면서도 무지한 검은 장막이 그녀의 눈앞을 돌연 가려 버렸다.³¹⁾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에덴’에서의 여성들은 ‘무물의 진(無物之陣)³²⁾에 빠진다. 그녀들은 분명히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 있지만, 명확한 적을 찾지 못하고, 어느새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다. 저자는 루 부인의 실패한 저항을 통해 세상의 불평등, 성차별과 이유 없는 혐오는 단 한 번의 투쟁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성차별이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작은 버섯』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여성의 출산 자유를 제한하는 폭력적인 디스토피아를 그린다. 저자는 이러한 디스토피아 공간을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현실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지구 끝의 온실』은 『작은 버섯』처럼 디스토피아 세계를 통해 직설적으로 성차별 현상을 비판하지 않았

31) 一十四洲, 『小蘑菇: 默示錄』, 北京: 北京聯合出版公司, 2020, 154쪽.

32) 루쉰(魯迅)이 산문시집 『야초(野草)』(1927)에 수록된 『이러한 전사(這樣的戰士)』(1925)에서 언급한 용어로, 분명히 적대세력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분명한 적을 찾을 수 없고,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모호하며, 명확한 전선이 형성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수시로 온갖 다양한 벽에 부딪히지만, 그 벽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일 때를 가리킨다. 錢理群, 『心靈的探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123쪽.

지만, 하나의 유토피아를 만듦으로써 젠더 고정관념을 풍자하였다. 조애나 러스(Joanna Russ)는 유토피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한다기보다는 결핍의 반작용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유토피아가 SF 작가들은 지금 여기의 사회와 여성에게 결핍되었다고 믿는 가치를 소설로 제공한다. 이 소설들에서 강조된 긍정적인 가치는 저자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회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낸다.³³⁾ 『지구 끝의 온실』의 여성 공동체나 여성 연대의 구축에 대한 강조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고립되고 타자화되는 현상과 여성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는 것을 무수한 제약이 가로막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4. 인류세의 횡단과 공산의 사유

오랫동안 여성은 항상 자연과 연결되어 왔다. 미국 학자 카렌 워렌(Karen Warren)은 여성, 자연, 핵무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는 종종 성차별적이고 자연주의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은 늘 젖소, 암탉, 여우, 뱀 등으로 묘사되곤 했다. 전통의 인간중심주의와 가부장제 문화에서 동물은 인간(특히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어 여성을 동물화하고 여성에게 열등한 지위를 강제로 부여하며 자연에 대한 지배도 강화되었다. ‘자연 어머니’는 정복되고 채굴되며 그녀의 ‘비밀’은 뚫어지고 그녀의 ‘자궁’은 ‘과학적인 인간’을 위한 공급처가 되었다. 남성들은 자연을 여성화함으로써 이들을 착취하고, 여성을 자연화함으로써 그녀들을 억압한다.³⁴⁾

인류의 문명사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역사이자 남성이 여성

33) 조애나 러스 지음, 나현영 옮김,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포도밭, 2020, 331쪽.

34) Karen Warren,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p.12.

을 타자화하고 억압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이 두 억압의 지배 논리는 본질적으로 동형이며, 케빈 허칭스(Kevin Hutchings)가 지적했듯이 “자연에 대한 사회적 구축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구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³⁵⁾ 여성과 자연은 같은 지배 논리에 놓려 자발적으로 ‘운명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런 운명공동체는 선형적이고 본질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구축된 것이다.³⁶⁾ 이는 많은 여성 작가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여성을 자연과 연결시키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인류세³⁷⁾ 담론이 부상하면서 자연, 비인간 생명체에 관한 문제가 여성 작가들의 관심을 더 끌고 있다. 자연과학의 용어였던 ‘인류세’는 현재 인문과학 분야에도 널리 공유되어 “‘지구’의 긴 시간 속에서, 역사에서 유일한 행위 주체였던 인간이 더 이상 비인간 존재와 구분될 수 없음을 의미”³⁸⁾하기도 하다. 많은 생태문제를 다루는 SF소설은 먼 미래에 발생할 자연재해를 가설로 다루거나, 생태 파괴가 초래한 세계 종말의 황폐해진 사회 모습이나 인간 주인공들은 인류의 단합력이나 과학기술의 힘을 통해 대안적 삶을 찾는 이야기를 주된 스토리 내용으로 다룬다. 그러나 『지구 끝의 온실』과 『작은 버섯』은 인간이 아닌 비인간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를 횡단하는 공존의 상상력을 보여준다.

35) Kevin Hutchings, *Ecocriticism in British Romantic Studies*, *Literature Compass* No.4, 2007, pp.185-186.

36) 프랑스 작가 프랑소와 드본느(Francoise d' Eaubonne)는 1974년 발표한 『페미니즘 또는 죽음(Feminism or Death)』에서 ‘에코 페미니즘(ecological feminism)’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드본느는 자연과 여성 사이에 어떤 선천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여성들은 그 미묘한 연관성을 통해 뿌리 깊은 이원적 대립 관계의 패러다임을 깨고 자발적으로 자연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하며, 미래에는 여성이 주도하는 생태혁명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젠더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37) 인류세(Anthropocene)는 네덜란드의 화학자 파울 크뤼첸(Paul Jozef Crutzen)이 2000년에 처음 제안한 개념이고 인류의 활동은 지구 생태계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38) 이양숙, 앞의 글, 162-163쪽.

“모스바나가 자연인지 인공인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요. 모스바나는 자연인 동시에 인공적인 것이지요. 모스바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모두 자연에서 왔고, 그것은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 모스바나라는 총체가 되었으며, 다시 자연의 일부로 진입했습니다. 인간이 모스바나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모스바나가 인간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둘은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모스바나는 인간에게 적응하는 전략으로 그 종의 번영을 추구하고, 인간은 모스바나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스바나와 인간은 일종의 공진화를 이룬 셈입니다.”³⁹⁾

인용문에서 나온 듯이 『지구 끝의 온실』에서 모스바나와 인간은 일종의 공진화 관계를 보여준다. 공진화는 여러 개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구 멸망의 위기에서 모스바나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은 모스바나의 힘을 빌려 지구를 재건한다. 김초엽은 SF적 상상력을 통해 하나의 구상적인 쓸루세(Chthulucene)⁴⁰⁾를 만들어낸다. 쓸루세는 자본세,⁴¹⁾ 인류세와 달리, 세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시대 안에서 아직 진행하고 있는 복수종의 실천과 함께 되기 이야기로 구성된다. 쓸루세에서 인간은 단지 반응만 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며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유일한

39) 김초엽, 앞의 책, 371쪽.

40) 쓸루세(Chthulucene)는 도나 해러웨이가 제기한 개념이고, 신화 속 땅속에 사는 사신(邪神)인 ‘Cthulhu’와 시대를 뜻하는 ‘cene’의 합성어이다. 쓸루세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땅속의 그물망처럼 얽혀 현재 진행 중인 시간을 살아간다. 그물망 속에서 그 누구도 전적으로 수동적이지 않다. 쓸루세는 이미 인간에 의해 파괴되었던 세계로 볼 수 있다. 인간은 몸과 감각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과 공존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인간은 괴물(사실 인간 자신이기도 하다)의 형태로 만신창이가 되는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41)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화석연료 채굴과 자본주의의 공모와 연루된 힘들의 망을 드러내기 위해 ‘자본세(Capitalocene)’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행위자가 아니다. 따라서 해러웨이는 인간은 지구와 함께 있고 지구상의 존재이며, 이 지구의 생물적이고 비생물적인 힘들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⁴²⁾라고 강조한다. 소설 속에 나오미는 모스바나와 인간처럼 모두를 향한 테라폴리스(Terrapolis)⁴³⁾를 만들기 위해 상호 간 공진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데이터는 모스바나의 원종이 출현한 대륙을 가리켜요. 프림 빌리지의 위치인 말레이시아 케봉 지역이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모스바나가 처음 대규모 군락지를 이뤘어요. 하지만 여기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온실에게 출발해 세계 곳곳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이 모스바나 원종은 여러 장소로 퍼져 나가요.”

점들은 서로 다른 대륙에, 각각의 나라에 찍혔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세계 곳곳으로 향하는 선이 이어졌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한 장소도 아니었죠. 온실에게 떠난 이들이 거의 같은 시대에 각자 도착한 곳에서 모스바나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중략...) 거의 세계의 전 대륙에 최초의 모스바나들이 심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스바나들이 그렇게 단기간에 지구를 뒤덮을 수 있었던 것이죠.”⁴⁴⁾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레이첼, 지수와 프림 빌리지의 사람들의 관계도 일종의 공진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러웨이는 공진화가 생물학에서 관습적으로 채택되는 것보다 더 넓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는 문화적 변화로 보고 이 변화를 공진화 사

42) 도나 해러웨이 지음, 최유미 옮김,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99쪽.

43) 테라폴리스(Terrapolis)는 ‘공생의 정치체’라고 할 수 있다. 테라(tera-)는 ‘땅’을 의미하고, 폴리스(polis)는 정치체를 의미한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정치는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때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생 관계를 맺는 모든 활동에 정치가 작동한다.

44) 김초엽, 앞의 책, 362-363쪽.

레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한다. “자연문화에서 면역계는 사소한 부분이 아니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을 결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규정하기 때문이다.”⁴⁵⁾ 레이첼은 사이보그이며 자신을 정비하기 위해 지수의 기술이 필요하고, 지수와 마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레이첼의 식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프림 빌리지의 사람들이 지수와와의 약속을 지켜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모스바나를 심어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프림 빌리지를 떠나지만, 마음은 평생 그곳에 붙잡혀 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지구에 가져온 변화와 서로의 행동을 통해 느끼는 감정의 변화도 일종의 공진화로 볼 수 있다. 작가는 하나의 디스토피아를 만들었지만, 결국 인간과 비인간은 함께하기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지구 끝에서 나타난 희망을 보여준다.

인간과 과학기술이 세계를 바꾸는 것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SF보다 『작은 버섯』은 이세계(異世界)에 대한 상상을 더 강조한다. 『작은 버섯』은 ‘크툴루(Cthulhu)’⁴⁶⁾ 세계와 비인간 주인공의 설정을 통해 새로운 포스트휴먼적 상상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쓰여진 이 소설은 하나의 예언처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일관된 발전주의적인 서사를 전복시킨다. 기존의 인류세 상상 속에서 인간은 생존의 위기 앞에서 항상 집단주의 원칙이나 ‘대국적인 관점(大局觀)’⁴⁷⁾을 가지고 있고, 인류 문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

45) 도나 해러웨이 지음, 황희선 옮김, 앞의 책, 154-155쪽.

46) ‘크툴루(Cthulhu)’라는 개념이 1928년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Howard Phillips Lovecraft)의 단편 소설 「크툴루의 부름(The Call of Cthulhu)」에서 유래되었으며, 가장 먼저 등장한 고대 사신(邪神)(인간의 윤곽이 있지만 문어처럼 많은 촉수가 달린 머리가 있고, 몸은 비늘을 덮은 콜로이드처럼 생기며 거대한 발과 좁고 긴 날개가 있다.)의 이름이고, 러브크래프트의 신화 체계도 여기서 비롯됐다. 이 신화 체계는 ‘우주의 공포’를 주제로 하고, 러브크래프트가 1920~30년대에 창작한 중·단편 소설들을 크툴루 세계관의 바탕으로 한다. 러브크래프트는 자신의 소설에서 묘사하는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이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공포”이며, “모든 인류의 운명에 드리운 먹구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크툴루 신화의 핵심이기도 하다.

47) ‘대국적인 관점’은 전체의 국면이나 형세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저촉될 때 집단의 이익을 따라야 한다는 관점이다.

편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작은 버섯』에서 인간은 감염 의심자의 ‘희생’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집단을 위한 모든 ‘희생’은 다 무의미한 행동이 되어버렸다. 루 부인과 ‘에덴’ 소녀들의 이야기는 집단주의적인 희생정신에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한다. 여성들이 보호받는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없다. 바로 인간의 ‘자궁’이 되기 위한 것이다. 루 부인이 별로 변신한 소녀들을 이끌어 하늘을 날아가는 순간 인류는 ‘자궁’을 잃었고 스스로를 멸망시킨다. 소설에서 “인간의 이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조 아래 수많은 선인들이 후대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며 짧은 평화를 이룩한다. 그리고 소수를 희생시켜 다수의 이익을 지키는 영웅주의에는 인간성과 윤리에 대한 의구심이 담겨 있다.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1968)에서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감 능력의 유무이다. 그러나 『작은 버섯』에서 루풍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신념을 위해 자아를 억제하고, 공감 능력을 폐쇄하며, 정신이 붕괴될 형편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비인간인 안절을 통해 다시 공감 능력을 얻게 된다.

루 부인은 사방의 벽을 둘러 보았다. 벽 너머에 있는 인간 기지 전체를 보는 것 같기도 했다.

“그게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곳에서는 매 초마다 사람이 죽어가니까요. 이 시대의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류를 하나의 거대한 생물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서로 다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한 생물의 서로 다른 기관인 거죠. 라이트 타워는 대뇌, 군대는 손톱과 이빨이고, 사이드 시티의 사람들은 피와 살, 건축과 장벽은 피부, 에덴은 자궁인 셈이에요.”⁴⁸⁾

인용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에서 온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를 오염시키는 것, 인간이 괴물에 저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지키

48) 一十四洲, 앞의 책, 160쪽.

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인간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후대를 번성케 하는 것도, 자원을 확보하고 자기 자신을 키워내는 것도 야수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 인간은 단지 영민함으로 자신의 행위에 자기 기만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종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된다.⁴⁹⁾

아이러니하게도 ‘장미꽃 선언’과 ‘심판정’과 같이 인간 유전자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100여 년간 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 결합을 주창했던 융합과 과학자들과 이종인 작은 버섯이 인간을 구하였다. 버섯은 인간도 동·식물도 아닌 생명체라서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관찰한다. 김초엽의 단편 소설 「늪지의 소년」에서도 지적 능력을 가진 군사체의 시점에서 주인공의 생존 과정이 서술된다. 주인공인 클론 아이는 늪지의 물을 마시고 늪지의 군사체는 주인공의 배설물을 분해하면서 서로의 경계를 넘고 공존한다. 『작은 버섯』에서도 모든 위기가 해결된 후 인간은 여전히 변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먹이 사슬의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 인간이라는 종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생존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한다. “어떤 사람은 하강이라고 말하지만 난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새로운 성취와 인식을 지닌 채 인류 조상이 걸었던 길을 다시 한 번 걷는 거죠.”⁵⁰⁾ 인간은 세계의 다양한 생물과 평등하게 공존하고 심지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작가는 종말의 설정을 이용하여 인간과 자연, 인간과 자유, 인간성과 야만성 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은 과학만능주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가 공진화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디스토피아 세계에도 유토피아를 만들어 희망적인 종말의 상상을 보여준다. 반면 일십사주의 『작은 버섯』은 더 암흑적이고 소극적인 종말 세계를 통해 기존의 젠더

49) 위의 책, 367쪽.

50) 위의 책, 302쪽.

구조와 집단주의를 비판한다. 두 작품이 보여주는 인류세에 대한 횡단과 로맨스가 녹아 있는 새로운 종말의 상상은 여성 SF작가들이 과학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대한 염려이고,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항적인 서사이다.

4. 나오며

SF소설은 ‘진복성’과 ‘환상성’을 동시에 갖춘 문학 장르이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어슐러 르 킨(Ursula K. Le Guin)은 “SF는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인형처럼 묘사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괴물의 폭행을 당하거나, 과도하게 발달한 지적 기관으로 인해 성적 능력을 상실한 노처녀형 여성 과학자로 묘사한다. 가장 좋은 경우는 재능 있는 남성 주인공의 충성스러운 젊은 아내나 정부에 불과하다.”⁵¹⁾라고 말하였다. 조안나 러스는 이것이 SF소설 상상력의 실패라고 주장하며 ‘은하 교외’⁵²⁾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김초엽과 일십사주는 과거의 SF소설에 자주 등장했던 개성 없는 여성 캐릭터가 아닌 다양하고 진실한 여성 캐릭터를 창조하고, 이 여성 인물들을 통해 SF적 상상력을 가득 찬 새로운 페미니즘 양상을 보여주었다.

51) Ursula K. Le Guin, *American SF and the Other*, *SCIENCE-FICTION STUDIES Volume 2 Part 3*, DePauw University, 1975, p.208.

52) 많은 SF 이야기들은 미래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상상하고 전망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SF소설에서 미래의 인간들은 은하에 정착할 수 있고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이성에 가정에서 살고 집집마다 두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그려냈다. 이는 1950년대의 미국 교외에 있는 가정과 똑같고, 젠더 구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사회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F소설이 백인 중산층 가정의 젠더 고정관념을 답습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지구 끝의 온실』과 『작은 버섯』은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인간과 비인간의 결합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 섹슈얼리티를 전복하고 퀴어링된 로맨스를 보여준다. 그리고 김초엽은 튼튼한 여성 연대로 만든 지구 끝의 유토피아를 통해, 일십사주는 여성이 ‘걸어다니는 자궁’으로 전략하는 디스토피아를 통해 여성 유토피아 구축의 (불)가능성을 보여준다. 에트우드(Edith)는 ‘유토피아(Utopia)’라는 개념을 제기하여 각각의 디스토피아 안에 약간의 유토피아가 숨어 있고 각각의 유토피아 안에 약간의 디스토피아가 숨어 있다⁵³⁾고 주장한다. 그럼 이 두 작품에 숨어 있는 그 약간의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가 무엇일까? 『지구 끝의 온실』에서 여성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지만, 프리 빌리지 밖의 세상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프리 빌리지는 멸망의 잔여물 위에 세워진 마을이고 마을 밖의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유토피아적 평온한 삶은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작은 버섯』의 유토피아가 미래에 존재한다. 순수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종 간의 융합과 변이가 일상화되는 멀지 않은 미래에서 생명권리 또한 무의미해지고 여성은 완전한 출산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초엽과 일십사주는 종말 서사를 통해 인류세를 횡단하는 공산의 사유를 보여준다.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류가 자랑하는 인간성, 이성과 자유 의지는 허구에 불과하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동물, 식물, 비생명체 등 반려종들과 함께 진화해 왔으며, 반려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과 ‘인간성’,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53) 마거릿 에트우드 지음, 양미래 옮김, 『나는 왜 SF를 쓰는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서』, 민음사, 2021, 141쪽.

參考文獻

기본자료

- 김초엽, 『지구 끝의 온실』, 자이언트북스, 2021.
一十四洲, 『小蘑菇: 審判日』, 北京聯合出版公司, 2020.
_____, 『小蘑菇: 默示錄』, 北京聯合出版公司, 2020.

단행본

- 김효진, 『#SF #페미니즘 #그녀들 이야기』, 요다, 2021.
도나 해러웨이 지음, 민경숙 옮김, 『겸손한 목격자: @제2의_천년. 여성인간©_양코마우스TM를_만나다: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갈무리, 2007.
_____, 최유미 옮김,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_____, 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도리스 레싱 지음, 권영희 옮김, 『금색 공책 1』, 창비, 2019.
마가렛 애트우드 지음, 양미래 옮김, 『나는 왜 SF를 쓰는가: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서』, 민음사, 2021.
미셸 푸코 지음,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나남, 2010.
윌리엄 P. 브라운 지음, 하경택 옮김, 『시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조애나 러스 지음, 나현영 옮김,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포도밭출판사, 2020.
錢理群, 『心靈的探尋』, 北京大學出版社, 1997.
史鐵生, 『病隙碎筆』, 湖南: 湖南文藝出版社, 2017.
Karen Warren, Ecofeminism: Women, Culture, Na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Michel Foucault 지음, Graham Burchell 옮김,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8-1979, Palgrave Macmillan, 2008.

논문

- 강은교·김은주, 「한국 SF와 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조우: 김보영의 「얼마나 닮았는가」와 두나의 「두 번째 유모」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윤이형과 김초엽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 김숙희, 「여성적 글쓰기의 또 다른 지평: SF소설」, 『젠더연구』 제6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2.
- 김애령, 「사이보그와 그 자매들: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 수사 전략」, 『한국여성철학』 제21호, 한국여성철학회, 2014.
- 노대원, 「대체 역사 SF의 젠더 정치학-복거일 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비판적 독해」, 『탈경계인문학』 제23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8.
- 신두호, 「환상에서 현실로: 인류세, 기후변화, 문학적 수용의 과제」, 『人文科學』 60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 윤영옥, 「한국여성 SF에 나타난 신체기술과 지구공동체-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을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제9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 이양숙, 「인류세 시대의 유스토피아와 사이보그-‘되기」, 『도시인문학연구』 15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23.
- Kevin Hutchings, *Ecocriticism in British Romantic Studies*, Literature Compass No.4, 2007.
- Ursula K. Le Guin, 「American SF and the Other」, SCIENCE-FICTION STUDIES Volume 2 Part 3, DePauw University, 1975.

Abstract

Feminism Aspect Presented in Korean-Chinese Women's Science Fiction

— Focus on “Greenhouse at the End of the Earth” and “the Little Mushroom”

Ding Jingyi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cience fiction "Greenhouse at the End of the Earth" by Korean writer Kim Cho-ye and "the Little Mushroom" by Chinese writer Yi Shisizhou, to explore how Women's science fiction writers in Korea and China reconstruct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the world through science fiction narratives. After 2000, Women's science fiction literature in Korea and China entered a period of rapid development. Before the 1990s, science fiction was considered a literary genre exclusive to men in both Korea and China. After entering the 1990s, science fiction gradually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science fiction literature written by female writers also began to rise. In the works of these female science fiction writers, we can find many feminist consciousnesses that attempt to subvert the existing male-centered and modernist ideas. This article attempts to cross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to explore why East Asian Women's writers want to overthrow the existing gender order through the literary genre of science fiction, and by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Women's science fiction novels, explore the possibility of East Asian women using science fiction literature as a bridge for dialogue.

Key words : SF, Feminism, Cyborg, Queer, Utopia, Dystopia

투 고 일 : 2024. 7. 10. / 심 사 일 : 2024. 7. 15. ~ 2024. 8. 15. / 게재확정일 : 2024. 8. 20.